

# 패륜범죄 극성... 가정이 무너진다

### 광산서 고교생이 부부싸움 경찰관 아버지 살해

### 광주·전남 존속범죄 증가세... 소통으로 회복 절실

존속범죄가 늘고, 수법도 흉포화해지고 있다. 고교생이 부모의 부부싸움에 불만을 품고 현지 경찰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용돈을 달라며 집에 불을 질러 노부모를 숨지게하는 등 패륜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24일 부모의 부부싸움에 불만을 품고 현지 경찰관인 아버지를 살해한 이모(17·고2)군을 구속했다. 이군은 지난 21일 오후 5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집에서 흥기로 아버지(54)의 등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아버지 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부부싸움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5월 목포에서는 보철금을 노리고 후배 1명과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려던 혐의로 김모(19)군과 이모(15)군이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김군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후배인 이군과 공모한 뒤, 아버지인 김모(58)씨와 어머니 박모(52)씨가 잠든 사이 출입문을 열어주고 이군이 집안에 들어오게 한 뒤 벽돌로 부모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칠순의 아버지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아

#### ■광주·전남 주요 존속범죄 일시

**아들 노부모 방화 사망** (2013년 2월 18일)  
알코올 중독 증세 아들 오모(42)씨 노부모에 돈 요구하다 다툼과정에서 불내 노부모와 자신 사망

**후배와 공모 부모 살인 미수** (2012년 5월 24일)  
보철금 노리고 후배와 공모 돈기로 부모를 내리쳐 다치게 함

**칠순 아버지 감금 폭행** (2012년 3월 31일)  
10억원대 건물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75)에게 수감 채운 뒤 아들 유모(37)씨 무차별 폭행

들이 구속됐다.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유모(37)씨는 10억 원 대 건물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75)를 방에 가두고 팔목에 수갑을 채운 뒤 마구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24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전남에서 이들이 나 딸 등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살해하는 존속범죄가 9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건수는 11건이나 됐다. 그 밖에 상해치사

4건, 폭행치사 2건, 폭행치사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간 폭행·상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쉬쉬하는 우리 사회의 성격상 사건화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10년과 2011년 각각 33건, 27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4건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반인륜적인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질주의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와 가족 해체 현상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존속범죄 증가세는 우리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행복심리상담개발원장은 "대화과 소통의 무대이자 힐링의 공간으로서 가족공동체를 복원하는데 힘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천변 담뱃불 화재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광주천변 둔치 잔디밭에 불이나 3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작은 화재도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목포대교서 또 투신 자살

### 시, 차량 순찰에도 별무소용... 개통 이후 8건

목포 대교에서 또다시 투신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순찰 강화, 보행자 출입 제한 등 안전 사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신 사고가 이어지면서 경찰과 자치단체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강모(19)양이 지난 22일 오후 3시께 목포대교

중간 지점에서 투신,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해경 경비정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해 6월 21일 목포 대교 개통 이후 벌써 투신 사고만 8번째로, 한 달에 한 번꼴이다.

이번 사고는 특히 목포시가 5개 민간단체와 함께 밤 시간대(밤 9시~

새벽 2시) 차량 순찰을 나르고 경찰이 보행자 출입과 차량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온 가운데 발생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투신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용 CCTV를 다리 곳곳에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6월 완료될 예정이어서 사고를 막지 못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도의장 50여년만에 무죄

북한을 옹호한 혐의로 1960년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 김창선(1901~1979) 초대 전남도의회 의장이 5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문우석)는 최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은 85세의 아들이 청구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로또 훔쳤지만... '10년 우정'이 용서

10여년간 쌓아온 우정도 4200만원이라는 로또 당첨금 앞에선 한 순간에 무너졌다.

건설현장에서 복수로 힘들게 생활해온 오모(36)씨는 지난 17일 533회 로또에서 2등(4200만원)에 당첨됐다. 오씨는 10여년을 함께 일해온 황모(39)씨에게

늘시다"라는 문자만 보내고 저녁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황씨는 대답이 없었고 급기야 전화도 꺼버렸다.

결국 오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황씨는 달아난 지 3일 만에 고향인 경기도 인근에서 붙잡혔다. 황씨는 오씨에게 훔친 로또 당첨금을 찾아 여동생에게

### 동료 2등 당첨 4200만원 갖고 도주

### 빛 갖고 유혹비로... 3일만에 붙잡혀

당첨 사실을 알리고 기쁨을 나눴다. "형님,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당첨금 30% 드릴게요"라는 '통 큰 약속'도 했다.

다음날 새벽, 오씨는 함께 잡자리에 들었던 황씨와 로또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오씨는 황씨가 가져간 사실을 알면서도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 "형님 돌아오세요. 저하고 절반씩 나

대출금을 갚으라며 1500만원을 건넸고 자신의 도박빚 1500만원도 갚았다. 유혹비로도

200만원을 썼다. 황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연락을 기다리던 오씨에게 500만원, 300만원만 보내줬다.

하지만 오씨는 경찰에 붙잡힌 황씨를 보며 "산배가 여동생에게 건넸던 돈을 찾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일을 해서 매달 갚기로 했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니원침 (8760) 김종두



### 무등산 또 큰일 날 뻔...

### 일주일만에 실화... 초기 진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에서 최근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잇따르면서 더욱 세심한 관리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중심사 입구 광동사 뒤편에서 불이 나 잡목 33m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사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산불예방 순찰 중이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10여 명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지

만 최근 무등산 산불이 모두 실수로 인한 산불로 추정돼, 산불감시원 추가 배치와 예방활동 강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등산에서는 지난 17일에도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무등산 새인봉 부근 숲 0.5ha가 피해를 입었다. 이 불로 광주시는 산불감시원 추가 배치와 신고체계 활성화 등 예방활동을 강화했으나 관리공단 사무소가 문을 여는 3월4일까지는 화재에 대해 산림청과 관할 자치구가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애로를 겪었다.

다행히 산불예방 순찰 중이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10여 명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지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동함평산단 불법조성 의혹 안병호 군수 수사 의뢰

감사원이 함평군의 동함평산업단지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동함평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불법이라는 주민들의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함평군을 상대로 감사를 한 결과, 안 군수의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현석기자 chadol@

### 경마장 가려고 또 기름 훔쳐

○경마 도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량에서 기름을 훔치던 40대 남성이 차 안에서 잡자던 운전자에게 발각돼 최고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장모(49)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8시께 광주시 서구 매월동 한 도로에 주차된 강모(55)씨의 한 대 트럭 기름통 뚜껑을 파손한 뒤 고무 호스를 집어넣어 경유를 훔쳤다는 것.

○경찰은 장씨가 같은 방법으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기름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 1년간 복역했다. 지난해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2013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수강생모집**

예쁜글씨 POP & 폰아트	스토리텔링과 어린이독서지도	모집기간: ~2013. 3. 8(금)
천연비누 & 화장품 만들기	점핑클레이	
리더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성격분석 도형상담	

노인심리상담사  
가정사역상담사

**여성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생활한방교육원(산아초응급관리사)

[www.kwangshin.ac.kr](http://www.kwangshin.ac.kr)

---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2013-1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3월 중 개강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인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자**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www.cjhellevision.com

**CTV 엘로비전**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볼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가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 헬로TV

▶ 엘로넷

▶ 엘로폰

**SAVE 최대 56%**

**헬로셋**

1588-3450

디지털 방송은 헬로TV로

\*위의 할인율은 가입 조건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